

두 날개로 날지 못한 건설사... '재개발'서 상반기 실적 희비

(국내·해외)

건설사 2분기 실적 전반적 부진
코로나로 4월 이후 실적 반토막
삼성물산 도시정비사업서 부활
대우·GS 등 조직정비로 반등준비



해외수주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도시 정비사업 수주와 신사업 진출, 조직 재정비 등에 힘쓰며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다.

단, 올해 2분기 실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탓에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건설사의 대부분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에 걸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수주 반토막, 삼성·현대 정비사업 호조

8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1월 해외수주액은 56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지난 2월과 3월에도 전년 대비 각각 50%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20.3%로 떨어지며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18억2000만달러, 13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초 수주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올랐지만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닥친 4월 이후 반토막이 났다.

중동현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해외 수주사업에서의 부진에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국내 정비사업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 시공사에 선정되면서 5년 만에 정비사업 시장에 복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비만 8000억원에 달하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시공

사로 선정되면서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의 입지를 다시 굳건히 다졌다는 평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수주고 1위에 올라섰다. 현재까지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3조4450억원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3037억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1686억원) ▲부산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4160억원)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853억원) ▲서울 장위 11-2구역 가로주택정비(402억원)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2080억원) ▲서울 제기4구역 재개발(1589억원)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

(2441억원) ▲대구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824억원) 등에서 수주권을 확보했다.

◆대림·GS·대우 조직 정비, 새 먹거리 모색

대림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인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으로 지난 1일 대림건설이 설립됐다 이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건설업계에서 다시금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대림그룹의 의도가 담겨 있다. 대림산업은 대림건설의 지분 66.36%를 보유하게 된다. 향후 대림건설은 시공능력평가(이하 시평) 10위권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화건설·태영건설·SK건설 등 다수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GS건설은 해외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해 인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진출했으며 민자발전사업(IPP) 개발자로서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에 발전용량 기준 300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1억8500만달러(약 2217억

원)며 GS건설의 투자금은 2350만달러(약 280억원)로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LNG 액화 플랜트 공사인 탕구 익스펜션 페이스2 공사 계약을 맺으며 신남방시장 개척에 나섰다. 공사 규모로는 다소 적을지도 모르는 5000만 달러(약 616억원)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시장 개척을 추진해 온 대우건설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LNG 액화 플랜트 분야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조짐을 보여 신규 수주가 줄어든 것은 물론 해외 공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동·강·성 아파트값 상승률, 서울 평균 2배

(동대문·강북·성북구)

서울 아파트 m²당 매매가 4.62%
GTX개발 등 개발호재로 상승세



서울 잠실일대 아파트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상반기 동·강·성(동대문·강북·성북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2배나 높게 나타났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르세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에서 시세상승 추세 지역으로 손꼽히는 동·강·성이 올해 상반기 서울 매매가 상승률의 두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

8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아파트 m²당 매매가격은 4.62%(1030만→1078만원)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북지역의 경우 6.77%(825만→866만원)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지역은 3.34%(1210만→1251만원)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북중심의 시세상승이 이뤄졌다.

서울 구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동대문 10.27%(782만→863만원) ▲성북 9.65%(757만→830만원) ▲강북 9.53%

(618만→677만원) ▲구로 8.45%(708만→751만원) ▲노원 8.43%(689만→747만원) 등의 시세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기존 서울 시세상승의 대장주로 불리던 마·용·성(마포 4.95%, 용산 2.36%, 성동 5.88%) 시세상승은 둔화된데 반해, GTX개발과 동북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시세상승의 추세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강·성 지역이 시세상승 상위권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북지역의 시세상승은 아파

트 매매거래량에도 즉각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올해(1~6월) 동대문, 성북, 강북, 노원 일대의 거래량은 ▲동대문(568→1359건) ▲성북(702→2002건) ▲강북(312→1156건)으로 모두 증가했으며, 최근 6·17 대책과 함께 매매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노원은 (1749→4534건) 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올해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정연우 기자

“카드사, 혁신 통해 종합지급결제업 역량 보여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실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쟁업체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구축해 고도화하며, 카드업계 혁신 DNA는 앞으로도 계속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업계 스스로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를 넘어 종합지급결제업까지 담당할 역량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은 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카드산업의 디지털 혁신현황 및 미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기존 카드업계의 혁신 사례를 짚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도 혁신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카드업계는 태생부터 회원과 가맹점을 연결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금융 시스템으로 태어났다”며 “데이터 기반 카드상품을 설계해 공급하고 생체정보

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실용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쟁업체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화 플랫폼도 구축해 고도화하며, 카드업계 혁신 DNA는 앞으로도 계속 발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카드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 하소연했다. 오픈뱅킹 참여에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확대를 앞둔 가운데 카드사가 신규 참여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석 기자 ysl@

산업단지 상상허브에 대유위니아 부지 지정

도심 노후산단 내 혁신거점 확충



대유위니아그룹이 정부 주도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유위니아는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에 대유위니아그룹 R&D 등 부지가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심의 노후산단 내에 혁신거점을 확충하기 위해 각종 산업·지원 기능을 높이는 복합개

발 사업이다. 준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조치로 대유위니아 부지도 새로 지정됐다.

성남시와 대유위니아그룹은 중원구 상대원동의 R&D 부지 등 새싹기업 지원 산업시설과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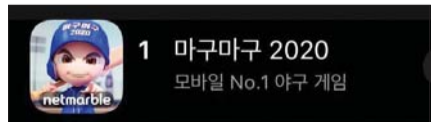
지원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국토부 공모에 지원해 전문가 평가를 거쳤다.

대유위니아그룹 R&D 센터 등 부지는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을 통해 창의성과 혁신성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단지로 재생될 예정이다. 기존 R&D 및 디자인 센터를 유지하면서도, 리모델링으로 발생한 여유공간과 부지를 제공해 도내 새싹기업과 공동연구시설의 입주를 지원한다. 성남시와 공동으로 주거와 보육,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 지원 시설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

‘마구마구2020’ 출시 전부터 앱스토어 1위

사전 다운로드 8시간만에 쾌거



넷마블은 신작 야구게임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이 사전 다운로드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넷마블은 지난 7일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을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식 출시일은 8일이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사전 다운로드 시작 후 8시간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위를 차지했으며, 8일 오전 8시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차트 급상승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넷마블이 15년 동안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 게임

‘마구마구’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야구게임이다. 이 게임은 마구마구 개발사 ‘넷마블엔파크’가 처음으로 만든 모바일 야구게임이기도 하다.

‘마구마구 2020 모바일’은 모바일 환경에 맞는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특히 스포츠 모바일게임에서는 보기 드문 ‘자동과밍시스템’을 적용해 팀을 짜고, 다른 이용자와 승부를 펼치는 야구게임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 KBO 시즌을 적용한 ‘라이브카드’와 이용자 간의 선수카드 거래가 가능한 ‘이적 센터’가 들어간다. /김나인 기자 slkni@